

지역 매 아 리

‘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김주택 김제시의원, 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요촌, 교월동)은 지난 11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돼 현재 결산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다.

결산검사 위원은 세입·세출·가급 및 재무제표, 금고 등의 결산 검사를 통해 2018회계연도 결산이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한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부족하지만 대표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 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결산검사가 김제시의 재정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관내 터미널 3개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완주군이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근절에 나선다.

완주군은 관내 터미널 3개소(삼례공용터미널, 고산공용터미널, 대둔산양지터미널)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 후 터미널 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주파수 탐지장비와 렌즈 탐지장비로 구성돼 있다.

주파수 탐지장비는 불법촬영 카메라 의식 공간에 센서 부위 근접 시 15단계 LED가 점등돼 탐지가 가능하

고, 렌즈 탐지장비는 시각형상화 도입으로 뷰파인더를 통해 카메라 위치를 붉은 점으로 확인하는 장비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본격 실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김광원 회장 강연

김제시는 2019년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문을 열었다.

이날 강의는 현재 ‘수원시 참여예산 연구회’ 김광원 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기존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대상별로 총5회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하

는 주민의 수도 500여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개념과 인근 시군의 우수사례를 배우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5부터 17까지 실시되는 권역별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김제시 예산현황’과 ‘주민참여예산운영 및 타 시군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중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사업단

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 및 이해, 주민참여예산 제안방법 실습, 타 시군 제안 사례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학교 운영 확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년체전 대비 안전점검

박준배 김제시장이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2일 관내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점검은 다음달 5월에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9. 5. 25. ~ 5. 28.)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운동장과 축구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계자로부터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새롭게 발견된 위험요소는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완주군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을 벌인다.

완주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점검반은 군청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여부 △유해식품 경과제품 사용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식물성유제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상원, 광정근)는 최근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기회의는 2019년 특색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로 시작했고, 이후 금년 첫 특색사업 선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여 세부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보다 나은 협의체 운영을 위해 장영임 성덕초등학교 교장을 새 위원으로 임명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 첫 특색사업으로 사람의 희망나눔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정신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 총 30세대의 희망나눔물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

번 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학용품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간위원장 광정근씨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신규 특화사업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과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회의의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김제시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1000여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뇌졸중 예방 ‘심방세동 선별검사’ 큰 호응

김제시보건소,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수강생 대상 시범 실시

김제시 보건소에서 최근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100여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심방세동 선별검사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선별검사는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처음 실시하였으며,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권역센터 순환기내과 전문의 판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추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심방세동이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장이 불규칙적이고 가늘게 빠른 속도로 떨게 되는 질환으로 진행될 경우 혈액이 저류되어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을 5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졸중 발생에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은 자각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양상으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뇌졸중, 뇌경색, 심장마비, 심부전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심장질환 선별검사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심방세동 선별검사 수혜 주민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보건소 내 정기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및 내혈압·혈당알기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을 줄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생활수칙을 습관화하도록 강조했다. 9가지 건강생활 수칙은 반드시 금연, 절주, 심검계 먹기, 꾸준한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사, 꾸준한 치료, 응급증상 발생 즉시 병원 이송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산불전문진화대, 강원 산불 이재민 성금 전달

완주군 산불예방전문진화대(대장 장현춘) 대원들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강원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완주군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9명이 모은 성금 50만원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기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퇴직자 및 귀농, 귀촌자를 중심으로 평균 연령 62세로 구성돼 있다.

산불 예방 및 계도, 산불 진화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며, 지자체로부

터 급여를 지급받는 단기 일자리 사업자로 산불진화 및 산림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현춘 완주군 산불진화대장은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며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재민들의 절망과 고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진화대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